

국영보험으로서 역할 제고를 위한 공익사업 운영방안

박 중 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략컨설팅센터 책임연구원

우체국보험이 생보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7.7%로 빅3사 다음의 위치에 이르는 양적·질적 성장을 고려해 볼 때, 국영보험으로서의 역할 정립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국영보험으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해 공공성 측면에서 우체국보험이 공익사업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련 분야의 지원방안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실제로 보험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본 간이보험이나, 민영생명보험회사에서도 공익사업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은 매우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의 간이보험과 민영생명보험회사의 공익사업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우체국보험이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I. 서 론

최근 금융산업의 환경변화는 대외적으로는 금융의 국제화 및 겸업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IMF구제금융 이후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 및 금융시장의 환경이 매우 빠르고 거세게 변화시키고 있다.

우체국보험은 대내적으로는 정보통신부 직원 및 보험관계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대외적으로는 IMF구제금융이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소비자들의 보험기관 선택기준이 수익보다 국가가 보증하는 안전한 기관으로 이동됨에 따라 1998회계연도 수입보험료가 전년 대비 24.3% 성장(민영생명보험회사는 △6.4%)한 3조5,200억원을 시현하였다. 그 결과 우체국보험은 생보시장에서 시장점유율 7.7%로 빅 3사(즉, 삼성생명, 교보생명 및 대한생명보험회사) 다음의 위치에 이르는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

우체국보험의 양적·질적 성장을 고려해 볼 때 생보산업에 있어, 우체국보험이 국영보험으로서의 역할 정립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국영보험으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해 공공성 측면에서 우체국보험이 공익사업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일본의 간이보험과 민영생명보험회사의 공익사업 운영사례 분석을 토대로 하여 우체국보험이 효율적으로 공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련 분야의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일본 간이보험의 공익사업 운영사례

1. 가입자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1) 목 적

간이보험은 “국민에게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을 확실한 경영을 통하여 되도록 값싼 보험료와 부금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할 것”(「간이생명보험법」 제1조 및 「우편연금법」 제1조)을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 사업의 목적중 하나인 국민의 경제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1945년 피보험자에 대하여 무료로 건강상담, 방문간호를 목적으로 간이보험건강상담소 즉 진료소를 설치·운영한 것이 시초이며, 점차 노인복지시설, 진료시설, 보양센터, 레크레이션시설, 회관 등으로 확대시켜 나아가고 있다.

복지시설의 다양화와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62년 우정대신 감독하에 특수법인인 “간이보험복지사업단”을 설립하였다.

2) 간이보험복지사업단

간이보험·우편연금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을 하기 위해 설립된 간이보험복지사업단의 주요사업은 가입자 복지시설의 설치·운영하는 것 외에 간이보험의 자금운용업무, 우편저금의 금리자유화대책자금의 자금운용업무, 우체국의 토지이용업무 및 간보건강증진 지원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간이보험복지사업단의 조직은 사업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획 및 지원부서로 조

직체제화 된 본부와 각종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부서로 2원화되어 있다. 1998년 12월말 현재 간이보험복지사업단에 근무하는 직원은 2,800여명이다.

3) 가입자 복지시설 현황

가입자 복지시설은 가입자 복지활동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시설로 가입자홈,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진료시설, 심신의 보양을 위한 보양센터,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한 레크레이션시설, 가입자 이용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설을 갖춘 회관 등이 있으며,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가입자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유 형	종 류	시설수	비 고
노인복지시설	가입자홈	14개소	노후의 쾌적한 생활과 심신의 보양을 위해 설치된 시설 · 종신희: 종신토록 이용(65세이상) · 장기홈: 1~5년 이용(65세이상) · 단기홈: 1개월이내 이용(55세이상)
진료시설	진료소	12개소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시설로 내과를 주축으로 한 진료 및 건강진단 시설을 구비하고 있고, 순회진료 및 재해의료구호도 수행
	종합건강진단센터	5개소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시설로 자동화건강진단설비, 진료실, 회의·연수실, 트레이닝룸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고, 순회진료 및 재해의료구호도 수행
보양센터	보양센터	80개소	- 쾌적한 여가활동 등 심신의 보양을 위해 마련된 시설 - 이용형태는 1주일이내 숙박 또는 당일귀가 이용도 가능
레크레이션시설	레크레이션센터	4개소	스포츠를 통한 각종 레크레이션활동 및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보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테니스코트, 수영장, 체육관, 다목적 운동장 등의 시설구비
	종합레크레이션센터	3개소	각종 레크레이션활동 및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보양을 위해 체육관, 테니스코트, 캠프장등 외에 회의·연수를 위한 숙박 시설도 구비
	캠ป์센터	3개소	가족동반 및 청소년에게 여름휴가의 건전한 야외활동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로 Cottage, 텐트, 취사장, 캠프화이어장 등의 시설을 구비
가입자의 이용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회관	2개소	생활의 다양화에 수반되는 각종 수요에 응하기 위해 가입자의 이용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시설로 숙박, 결혼식, 연회, 회의·연수, 문화교양, 건강의 유지·증진 등을 위한 각종 시설을 구비

자료: 郵政省 總務課, “日本の 郵政”, 1999. 1

4) 가입자 복지시설 이용 현황

최근 3년간 가입자 복지시설의 이용은 연평균 1,200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각 복지시설 별로 이용실태를 <표 2>에서 보면 보양센터가 696만명으로 58%, 회관이 204만명으로 17%, 가입자홈이 144만명으로 12% 등이다.

<표 2> 가입자 복지시설의 이용현황

(단위 : 만명)

구 분	보양센터	가입자홈	종합건강진단센터 및 진료소	레크레이션센터	회 관	계
인원 (점유비)	696 (58%)	144 (12%)	36 (3%)	120 (10%)	204 (17%)	1,200 (100%)

자료 : 간이보험복지사업단 내부자료

2. 간보건강증진 지원사업

1) 목 적

간이보험 가입자들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장수복지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3년 10월에 이 사업을 개시하였다. 1998도말 현재 조성금의 규모는 19조엔이다.

2) 지원대상 사업

간이보험 가입자들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 건강조성 사업(달리기대회, 게이트볼대회 등)
- 성인병예방사업(성인병예방 요리교실, 성인병예방 강연회 등)
- 개호지원사업(재택개호 교실, 개호기술 강연회 등)

3) 지원주체 등

지원주체는 “간이보험복지사업단”이고, 사업실시와 관련하여 운영주체는 가입자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인 “(재)간이보험가입자협회”에서 하고 있다.

3. 가입자를 위한 공익사업

1) 간보건강전화상담 서비스 실시

간이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1995년 7월부터 전화로 건강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상담의 내용은 개호에 대한 상담과 각종 정보제공, 건강유지와 관리, 심리적 고민, 정신건강, 임신·출산·육아관련 사항, 질병과 치료법에 대한 의문사항, 의료기관의 안내 등을 병원 또는 의원에 가기 전에 간이보험 가입자들은 먼저 상담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으로부터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전화로 상담을 할 수 있다.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 연중무휴로 상담에 응하고 있다.

2) 의료·개호관련정보제공 서비스의 실시

간이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통우체국의 창구에서 의료·개호·복지시설 등에 관한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의 정보제공을 1995년 4월부터 東京 및 關東지방의 郵政局관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1996년 4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용시간은 간이보험업무 취급시간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다.

3) 라디오 체조의 보급장려

라디오 체조는 가입자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1928년에 간이보험국이 제정한 것으로, 현재는 제1체조와 제2체조가 있으며 NHK의 라디오를 통해 매일 방송하고 있다.

간이보험국은 라디오 체조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NHK와 전국라디오 체조연맹과 공동주최로 매년 하기순회 라디오 체조회(여름휴가 기간중 전국 43곳에 1,000만인 라디오 체조 중앙대회 포함) 및 특별순회 라디오 체조회(일요일·경축일 중심으로 전국 10곳)를 개최하며, 이러한 행사를 NHK의 라디오를 통해 전국으로 중계방송하고 있다. 중앙대회의 경우 NHK의 TV로도 중계방송하고 있다.

4. 국민 및 가입자를 위한 문화활동

1) 간보작문대회 실시

작문을 통해 상부상조의 정신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회교육과 작문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간보작문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 대회는 1962년에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매년 1회씩 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2) 간이보험 문화강연회 실시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간이보험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각계에서 활동중인 분들을 강사로 초청하여 “간이보험 문화강연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강연회는 1979년에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12곳에서 매년 12회씩 개최하고 있다.

3) 지역심포지움 실시

다가올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한 생명보험사상의 보급을 도모하고 간이보험사업의 역할을 이해시키기 위해 생활설계와 가족의 개선방향, 여가를 보내는 방법 등을 테마로 각계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강연과 토론을 하는 지역심포지움을 전국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 심포지움은 1985년에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11곳에서 매년 11회씩 개최하고 있다.

Ⅲ. 민영생명보험회사의 공익사업 운영사례

1. 배 경

생명보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완수와 다수보험계약자 및 전체 국민의 복지증진을 통한 생명보험의 이미지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1989~1990년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자산 재평가 실시로 재평가익이 발생함에 따라 이의 처분방법의 하나로 과거 보험계약자의 공헌을 고려한 공익사업 전개에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에 재정경제부(舊 재무부)는 1990년 8월과 12월에 각각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

적립금 처리지침」과 「보험사 공익사업 추진방안」을 시달하여 재평가 차익을 주주지분·계약자지분·내부유보로 배분하되, 계약자지분중 과거 계약자지분은 공익기금으로 적립후 매년 그 이자금액으로 “재평가재원 공익사업”을 전개하며, 아울러 모든 생명보험회사가 참여하는 “업계공동 공익사업”을 생명보험협회 주관으로 시행토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생명보험업계는 우선 기존의 6개 생명보험회사가 전개해 오던 일반재원에 의한 공익사업을 포함하여 재평가재원에 의한 공익사업, 생명보험 업계공동의 공익사업을 생명보험협회가 종합적으로 관리·홍보키로 하고, 1991년 1월 “생명보험 공익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이를 중심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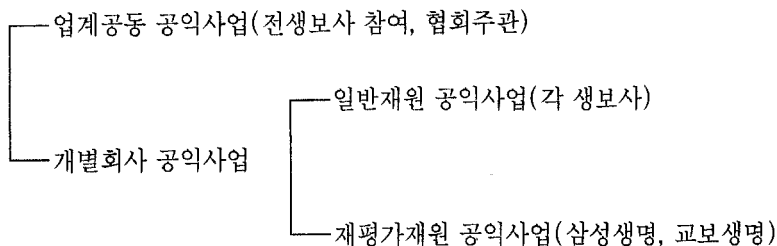
2. 공익사업의 분류

생명보험업계의 공익사업을 [그림 1]에서 보면 크게 개별생명보험회사 공익사업과 업계공동 공익사업으로 구분되며, 이중 개별생명보험회사의 공익사업은 다시 일반재원에 의한 공익사업과 재평가재원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일반재원에 의한 공익사업은 모든 생명보험회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신설생명보험회사의 경우는 경영 여건상 각종 문화행사 및 지역행사의 협찬 등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평가재원에 의한 공익사업은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삼성생명보험회사 및 교보생명보험회사 2개회사가 기금을 적립해 두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공동공익사업은 생명보험 업계전체가 참여하는 공익사업으로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1] 생보업계의 공익사업 분류

3.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

1) 사회복지분야

(1) 아동복지시설 지원

생명보험 업계는 연구용역의 결과와 생명보험의 사회보장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생명보험 업계공동의 공익사업으로 우리사회의 불우·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이들의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대상사업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 업계공동의 공익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키로 하고 동시설의 관리·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복지시설협회에 의뢰하여 1992년부터 매년 전국 15개 시·도별로 총 15개 시설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2) 노인촌 건립

도시·산업화 및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21세기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대비하여 노년층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삼성생명보험회사는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하갈리 일대 부지 33,898평에 노인촌 건립을 위해 1996년 9월에 착공하여 2000년 3월 완공예정으로 있다.

(3) 탁아소 건립·운영지원

삼성생명보험회사는 기혼여성의 취업 확대에 따른 자녀교육 대체기관 확충 요구와 특히 저소득 계층의 부모취업에 따른 자녀방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1989년 12월부터 지방 5대 도시에 탁아소를 건립·운영을 시작하였고, 1997년 12월말 현재 22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들은 지역사회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 맞벌이 부부의 영아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시설로서, 어린이집 운영비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산정된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1개 시설당 연간 1억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다.

(4) 결식노인 급식지원

핵가족화의 심화에 따른 노인세대의 증가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 중에서는 점심을 거르는 결식노인이 많이 있다. 삼성생명보험회사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또는 영세지역의 결식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1991년 7월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관과 노인정을 통해 급식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 의료관련분야(의료원 건립)

삼성생명보험회사는 의료시설의 확충으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생명보험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서울 수서지역에 전문의료센터 기능의 종합병원을 1994년 10월 월에 개원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

3) 대고객 서비스분야

(1) 계약자 무료종합 건강진단

생명보험 업계는 계약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신 의료장비 도입 및 전문의료진을 확충하여 계약자 및 임산부, 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무료건강진단 및 B형간염 무료 예방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 임·직원 등의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피부염,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성 환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의 체질 개선을 위한 처방제시 및 정기검사자의 지속적 사후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는 외부검진기관과 제휴하여 개인연금보험, 중장기 저축양로보험, 보장성보험의 既加入者로서 계약후 2~3년 경과시 매 2~3년마다 종신토록 건강진단서비스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제일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임산부 무료검진 및 B형간염 무료 예방진료와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흥국생명보험회사, 교보생명보험회사도 첨단의료 장비구입 등을 통하여 무료건강진단 수혜폭을 확대하는 등 생명보험 업계는 계약자에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2) 계약자초청 건강특강

동아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현대인의 주요 관심사인 건강분야에 대해 1993년부터 서울, 경기지역의 30~40대 주부계약자를 대상으로 해당분야 최고 권위자를 초청하여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4) 주택사업분야(임대주택사업)

생명보험회사가 계약자 및 국민의 복지증진 일환으로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여 계약자에게 공급함으로써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와 보험회사의 이미지 쇄신 및 공신력 제고를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발맞추어 제일생명보험회사는 1993년 2월 임대주택을 의정부시

에 건립하였으며, 입주자는 제일생명보험회사의 계약자 중에서 선발하였다.

5) 문화·체육 기타분야

(1) 체육꿈나무사업지원

미래의 한국 체육계를 이끌어갈 체육꿈나무들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1985년부터 교보생명보험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원종목은 비인기 기본종목을 중심으로 7개종목(유도, 테니스, 탁구, 핸드볼, 육상, 빙상, 체조)의 전국규모 초등학교 체육대회의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2) 교육·문예사업 지원

생명보험 업계는 전통문화계승, 건전한 청소년교육 및 문화발전을 위하여 교육·문예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학부모 의식개혁사업, 서울대 경영연구원건립, 휘트니비엔날레, 오태석연극제, 춘향 문화선양회, 대학가곡제, 국제현대무용제, 난영가요제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3) 지역문화행사 협찬

생명보험 업계는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각 지방의 독특한 전통문화유산을 계승발전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행사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국민정서의 기틀 마련에 보탬이 되고자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여러 지방의 전통적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온 국민이 다함께 참여하여 행사의 의의를 기릴 수 있는 진해군향제, 강릉단오제, 전주풍납제, 한산대첩기념대전, 제천예술제, 가락문화제, 밀양아리랑제, 달구벌축제, 무등축전, 한밭축전, 복사골예술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4) 전국 사생실기대회 개최

삼성생명보험회사는 청소년들의 밝고 고운 꿈을 화폭에 담은 순수문화행사인 전국 사생실기대회를 198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생실기대회는 유치부,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부, 중학부, 고등부 등 연령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Ⅳ. 우체국보험의 공익사업 운영방안

1. 배 경

우체국보험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영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별도로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우체국보험사업 그 자체가 수익사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사회공헌의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생명보험 사업은 일종의 공공성을 띤 수익사업으로 기업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시키고자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계 차원에서 1991년부터 공익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회사가 매년 결산을 행하면 보통의 경우 이익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 이익금의 원천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필요이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장래의 경제적인 환경변화에 견딜 수 있도록 사망률, 이율 등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산출된 概算保險料이기 때문에 실제 생명보험회사에서 운영한 經驗保險料와는 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 차액이 이익금으로 이 금액은 생명보험회사의 純粹利益이 아니고 보험료의 정산차액이므로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반환되어야 할 성격이다. 둘째, 임·직원들이 합리적으로 사업경영에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임·직원들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얻어진 이익금은 일반적으로 보통기업이면 株主配當 등에 충당되지만 생명보

〈표 3〉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비교

구 분	주식회사	상호회사
법적성격	商法상의 회사로서 영리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
구성원	주주	보험계약자
보험관계	사원관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보험관계와 사원관계는 동시에 존재
자본	인보험 - 100억원, 손해보험-300억원	없음 기금은 차입관계로 장래에 상각됨
경영참가	최고 경영기관은 주주총회	보험계약자인 사원총회
사업책임	사업상 손익의 책임은 주주	사원인 보험계약자
설립	발기인 7인이상	사원 100인이상
의결권	1주당 1개의 의결권	사원 1인당 1개의 의결권
이익금의 귀속	계약자, 주주	계약자

협회사의 경우 회사 형태에 따라 이익금의 귀속원천이 달라진다. 생명보험회사 형태의 2종류 즉 주식회사와 상호회사를 성격 등을 상호·비교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우체국보험은 「無資本特殊法人」으로 「상호회사」의 성격과 유사하므로, 우체국보험사업 운영에서 발생된 이익금을 정보통신부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우체국보험 사업재개 당시 기존의 우체국 등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기여도를 감안한다면 이익금의 일정지분을 정보통신부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우체국보험 사업운영 결과 매년 발생되는 이익금의 일정부분을 국영보험으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해 공공성 측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련분야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공익사업의 운영은 우체국보험 가입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나아가 우체국보험 사업발전에 있어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2. 투자 및 지원 규모

최근 5년간 당기순익은 <표 4>와 같으며, 이 이익금의 일정지분을 공익사업에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 규모는 당기이익금의 10%내·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생명보험회사에서 현재 매사업년도말 결산시 발생된 배당전잉여금 처리 기준을 보면 지급여력이 8%이상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주주지분은 30%이하이고, 계약자지분은 주주지분의 잔여액인 70%이상으로 되어 있다. 우체국보험은 지급여력이 8%이상이나, 생명보험회사의 주주지분율과 동일한 지분율로 공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투자 및 지원규모로 하는 것 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공익사업 운영의 연속성 및 그 규모를 매년 큰 변동없이 운영하기 위함이다.

<표 4> 최근 5년간 우체국보험의 순익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1994	1995	1996	1997	1998
당기순익	7,888	4,013	6,962	18,478	35,689
누적순익	24,283	28,295	35,257	53,735	89,427

자료 : 정보통신부 체신금융국, "1998년도 체신보험통계연보", 1999. 4

3. 공익사업 운영방안

1) 가입자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1) 목 적

우체국보험 사업은 금융의 대중화와 보험의 보편화를 통해 대국민 금융편익을 제공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공공투자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체국보험 사업의 목적중 하나인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투입은 구미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국영보험인 우체국보험의 복지사업 운영은 국가 복지사업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우체국보험은 정부에서 국민을 상대로 운용하는 일종의 수익사업으로 그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요관광지, 휴양지 등의 각종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주계층은 도시의 중산층 이상이며, 우체국보험의 가입자는 도시의 저소득층과 농·어촌 주민들이 대다수로 이들 계층은 현실적으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다소 경제적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우체국보험이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국영보험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정부의 복지사업 지원을 보완하는 기능도 담당하게 되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우체국보험의 존재가치를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복지시설 관리단의 조직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있어, 우체국보험의 현 조직체계하에서는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고 또한 관리의 용이성 등에 다소 미흡하므로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방안과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위탁관리하는 방안은 우체국보험 조직에서 벗어나므로 통제 및 관리에 대한 미흡과 운영의 부실로 인한 책임소재가 우체국보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되므로 이 방안의 채택은 적합하지 않다. 별도의 조직 즉, 가칭 “복지시설 관리단”이 설립·운영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이 방안은 우체국보험에서 직접 통제가 가능하며, 사례로 일본 간이보험에서 운영하는 가입자복지시설은 “간이보험복지사업단”이라는 별도 조직하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별도의 조직이 설립되면, 이 조직에서 장기적으로는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3) 복지시설

우체국보험 가입자를 위한 복지시설은 가입자 복지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현재 우체국보험의 복지시설로는 서울 및 부산의 보험회관, 경기도 안성에 부지를 매입한 연금동산 그리고 관광지인 경주 보문단지에 매입한 휴양시설이 있으나, 보험회관을 제외하고는 부지만 매입하였지 건립은 되지 않고 있다.

우체국보험이 가입자를 위하고 국영보험으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해 장기적으로 설치·운영되어야 할 복지시설은 <표 5>와 같다.

<표 5> 우체국이 장기적으로 설치·운영되어야 할 복지시설

구 분	시 설 내 용	비 고
연금동산	노인복지시설로 노후의 안락한 생활과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 종신이용 - 일정기간이용(예; 3년, 5년, 10년)	“노후생활의 집”건립을 위해 1992년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에 부지매입
건강진료센터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시설	
휴양센터	건강한 사회조성 및 정신함양을 위한 주요 관광지 및 휴양지의 숙박시설	“휴양시설”건립을 위해 1993년 경주보문단지내 호텔지구내 토지매입
보험회관	생활의 다양화에 수반되는 수요에 맞게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시설로 숙박, 예식장, 회의·연수 등의 각종 시설을 구비	- 현재 보험회관으로 서울영등포보험회관 및 부산보험회관이있으나, 이들 회관은 상가 및 사무실로 사용 - 대구보험회관은 건설중에 있고 완공예정일은 2000년

2) 복지분야

(1) 탁아소지원

도시·산업화의 진전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은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혼여성의 취업확대로 인한 자녀양육기관 즉, 탁아소는 확충되고 특히 저소득층의 부모취업에 따른

자녀양육문제는 사회문제화 될 것이다. 우체국보험이 탁아소를 직접 건립·운영하는데 있어 자금확보가 어렵고 인력도 부족하며, 나아가 특정지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함으로 이는 우체국보험이 보험의 보편화를 통한 국영보험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역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운영하는 탁아소에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2) 양로원 지원

핵가족화의 심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양로원에 대하여 우체국보험이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양로원은 정부 또는 종교단체 등 공공성을 가진 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한한다.

3) 대고객서비스 분야

(1) 의료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우체국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우체국 창구에서 각종 질병에 관한 예방 등 의료관련 안내책 무료배부, 나아가 지역내의 전문의료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의료관련 정보서비스 제공의 이용시간은 우체국업무 취급시간으로 제한하여 운용한다.

(2) 건강유지를 위한 강연회

우체국이 지역주민과의 밀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현대인의 최대 관심사인 건강분야에 대한 강연회를 해당분야별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개최한다.

(3) 생활서비스 제공

생활서비스란 결혼, 장례, 이사, 종합검진, 육아관련 정보 등의 서비스로, 이들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이다. 우체국보험 및 우체국예금의 가입자들은 도시의 저소득층과 농·어촌 주민들이 대다수이며, 이들 계층이 생활서비스를 제공받기를 가장 원하는 계층들이다. 이들 계층들을 위해 우체국에서 생활서비스를 취급하는 해당업체와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4) 문화·예술 분야

(1) 글짓기대회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글짓기 대회를 통해 상부상조의 정신을 함양시키고, 나아가 작문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 글짓기대회의 수상작품을 모아 우수

작품집을 발간하여 각급 학교 및 공공도서관에 배포함으로써 청소년 작문지도에 기여하도록 한다.

(2) 사생대회

청소년들의 밝고 고운 꿈을 화폭에 담은 사생대회를 유치부,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부, 중등부, 고등부 등으로 연령별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사생대회의 수상작품을 모아 우수작품집을 발간하여 각급 학교 및 공공도서관에 배포함으로써 청소년 미술지도에 기여하도록 한다.

(3) 문화강연회 실시

지방의 독특한 전통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문화행사의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국민정서의 기틀마련에 보탬이 되고자 각계에서 활동중인 인사를 강사를 초청하여 문화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우체국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속의 우체국으로 정립해 나아갈 수 있다.

4. 우체국보험가입자회 설치·운영

1) 개 요

우체국보험 가입자가 우체국보험사업 관련 각종 제도 및 운영에 있어 가입자입장에서 의견 또는 요망사항을 제출토록 하게 함으로서 가입자 공동의 이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체국보험가입자를 설치·운영한다. 우체국보험가입자회의 성격은 임의단체로 하되, 이 단체의 구성원은 우체국보험 가입자중에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우체국보험이 우체국보험가입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국영보험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고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우체국을 지역사회의 우체국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데 기여도 가능하다.

2) 조 직

우체국보험가입자의 조직은 전국 감독우체국을 단위로 감독우체국의 관할 지역내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자들을 중심으로 「지역가입자회」로 조직화 한다. 체신청단위로는 「지방연합회」를 조직화하고,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연합회」로 조직화 한다.

V. 결 론

우체국보험의 지속적인 성장과 괄목할 만한 생보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증가에 따라 국영보험으로서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우체국보험이 공익사업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련분야에 대한 지원은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실례로 보험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본 간이보험이나, 민영생명보험회사에서도 공익사업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은 매우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체국보험이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 및 관련법규의 제·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복지시설 관리단”의 조직 설립 우선 진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 이 조직에서 우체국사업 운영결과 발생된 이익금의 10%내 범위의 투자비를 고려하여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공익사업의 운영은 가입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탁아소 지원 등 공공분야의 지원으로 2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입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은 투자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추진중인 경기도 안성의 연금동산과 경주의 휴양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영등포 및 부산의 보험회관도 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공익사업으로 복지분야, 대고객서비스분야, 문화·예술분야의 각 분야별로 하나씩 지원하면, 단계적으로 지원 범위 및 규모도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체국보험이 공익사업 운영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련분야의 지원은 국영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나아가 생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김원수, 「고객만족 경영과 마케팅 패러다임의 전환」, 『월간마케팅』, 1994. 1
 박중권·이석범, 『체신보험의 역할 제고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12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공익사업』, 1994. 12

신이영, 「IMF체제하에서의 생명보험회사 대응전략」, 『보험개발연구』, 1998 제2호 통권 제24호

어윤대, 「IMF시대의 생명보험 경영」, 『원간생협』, 1998. 1

정보통신부, 『1999 정보통신백서』, 1999. 10

上田和勇, 「생·손보상호진입과 생보 마케팅과제」, *Insurance* (생보판), 1995. 4

郵政省, 『日本の郵政』, 平成 10年版, 平成 1月